

68골 메시, 새역사 썼다

유럽축구 한시즌 최다…獨 렐리 기록 39년만에 경신



‘축구 천재’ 리오넬 메시 (25·FC 바르셀로나·아르헨티나)가 유럽축구 시즌 최다 골 기록을 경신했다.

메시는 3일(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빌바오 산 마메스 경기장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경기에서 아틀레틱 빌바오를 3-0으로 완파했다.

이날 경기에서 대승을 거둔 마드리드는 승점 94를 쌓았다. 이로써 2시간

앞선 경기에서 말라가를 상대로 승점 3을 주기 위해 2위를 차지한 바르셀로나(87점)와의 승점 차를 7로 유지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37, 38라운드 두 경기만 남아 마드리드가 남은 경기에서 모두 지더라도

시즌 우승을 거머쥐게 됐다.

3위 밸렌시아(58점)와 점수 차를 크게 벌려 놓은 바르셀로나는 자동으로 2위가 됐다.

2006~2007, 2007~2008시즌 우승 이후 3년 연속 준우승으로 아쉬움을 달랠 애 했던 마드리드는 4년 만에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이날 경기 승리에도 불구하고 2경기를 남긴 상황에서 마드리드에 승점 7점을 차로 뒤지며 2011-12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마드리드에 넘겨주게 됐다.

또한 프리미어리가에서만 46호 골을 기록하며 라이벌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7·레알 마드리드·포르투갈) (44골)에 2골 차로 앞서며 득점 단독 선두 자리를 지켜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이날 경기 승리에도 불구하고 2경기를 남긴 상황에서 마드리드에 승점 7점을 차로 뒤지며 2011-12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마드리드에 넘겨주게 됐다.

/김일환기자 kh8@kwangju.co.kr

레알, 32번째 스페인 축구 정상에

‘축구 명가’ 레알 마드리드가 4년 만에 스페인 프리미어리가 월피언 타이틀을 탈환했다.

마드리드는 이끄는 조제 무리뉴 감독은 포르투갈, 잉글랜드, 이탈리아에 이어 마드리드에 부임한 지 2년 만에 스페인 리그까지 석권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마드리드는 3일 새벽(한국시간) 스페인 빌바오 산 마메스 경기장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경기에서 아틀레틱 빌바오를 3-0으로 완파했다.

이날 경기에서 대승을 거둔 마드리드는 승점 94를 쌓았다. 이로써 2시간 앞선 경기에서 말라가를 상대로 승점 3을 주기 위해 2위를 차지한 바르셀로나(87점)와의 승점 차를 7로 유지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37, 38라운드 두 경기만 남아 마드리드가 남은 경기에서 모두 지더라도

시즌 우승을 거머쥐게 됐다.

3위 밸렌시아(58점)와 점수 차를 크게 벌려 놓은 바르셀로나는 자동으로 2위가 됐다.

2006~2007, 2007~2008시즌 우승 이후 3년 연속 준우승으로 아쉬움을 달랠 애 했던 마드리드는 4년 만에



조제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레알 마드리드는 3일 새벽(한국시간) 스페인 빌바오 산 마메스 경기장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경기에서 아틀레틱 빌바오를 3-0으로 꺾고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다. 마드리드 선수들이 무리뉴 감독을 험기례치고 있다.

/연합뉴스

프리미어리가 32번째 우승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날 경기는 마드리드의 압도적인 우세로 펼쳐졌지만 출발은 불안했다.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25)와 득점왕 경쟁을 벌이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7)가 전반 11분께 슈팅한 페널티킥이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골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불운은 거기까지였다.

전반 15분쯤 호날두와 외질이 연결해 준 볼이 이과인의 오른발을 거쳐 마드리드의 선제골로 완성됐다.

마드리드는 그 후 4분 만에 호날두

가 오른쪽 측면에서 차준 땅볼 패스를 문전 좌측에 있던 외질이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해 추가 골을 얻었다. 두 팀은 치열한 공방을 계속했으나 어느 쪽도 더는 골을 터뜨리지 못했고, 마드리드는 프리미어리가 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이청용 잔류 문제없나

볼튼, 토트넘전 대패…프리미어리그 강등 위기

이청용(24)이 소속된 볼顿 원더러스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경기

만을 남겨 놓고 패배를 당해 강등될 위기에 처했다.

볼턴은 3일 새벽(한국시간) 리버풀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36

라운드 토트넘과의 홈경기에서 1-4로 졌다. 이에 따라 볼턴은 승점 34점(10승4무22패)으로 리그 18위에 머물러 강등위기에 처했다.

리그 15~16위 팀과는 승점 3이 뒤지고 17위 팀(퀸즈파크 레이저스)과는 승점이 같아 남은 경기에서 모두

이기지 않으면 자력으로 리그 잔류가 어려운 상황이다.

20개 팀으로 이뤄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하위 세 팀이 다음 시즌에 힘 피언리그(2부)로 떨어진다.

볼턴은 후반 6분 만에 리오코커가 만회골을 터뜨렸지만 토트넘을 공세를 막지 못하고 1-4 패배를 당했다.

/연합뉴스

볼턴은 3일 새벽(한국시간) 리버풀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36

라운드 토트넘과의 홈경기에서 1-4

로 졌다. 이에 따라 볼턴은 승점 34점(10승4무22패)으로 리그 18위에 머

물러 강등위기에 처했다.

리그 15~16위 팀과는 승점 3이 뒤

지고 17위 팀(퀸즈파크 레이저스)과는

승점이 같아 남은 경기에서 모두

이기지 않으면 자력으로 리그 잔류가 어려운 상황이다.

20개 팀으로 이뤄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하위 세 팀이 다음 시즌에 힘 피언리그(2부)로 떨어진다.

볼턴은 후반 6분 만에 리오코커가

만회골을 터뜨렸지만 토트넘을 공세

를 막지 못하고 1-4 패배를 당했다.

/연합뉴스

볼턴은 3일 새벽(한국시간) 리버풀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36

라운드 토트넘과의 홈경기에서 1-4

로 졌다. 이에 따라 볼턴은 승점 34점(10승4무22패)으로 리그 18위에 머

물러 강등위에 처했다.

리그 15~16위 팀과는 승점 3이 뒤

지고 17위 팀(퀸즈파크 레이저스)과는

승점이 같아 남은 경기에서 모두

이기지 않으면 자력으로 리그 잔류가 어려운 상황이다.

20개 팀으로 이뤄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하위 세 팀이 다음 시즌에 힘 피언리그(2부)로 떨어진다.

볼턴은 후반 6분 만에 리오코커가

만회골을 터뜨렸지만 토트넘을 공세

를 막지 못하고 1-4 패배를 당했다.

/연합뉴스

이청용 잔류 문제없나

사회복지법인설립 | 국가예산지원신청

“노인, 장애인, 평생교육원, 대안학교,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서류 전문!

각종간호증명 | 통장사본 필요하신분

C 061-4624-0100, 010-8254-5003

6월2일(화)

▶광주광역시외국인(비자)국민권利于제공(한국인) 토트넘과의 홈경기에서 1-4로 졌다. 이에 따라 볼턴은 승점 34점(10승4무22패)으로 리그 18위에 머물러 강등위에 처했다.

리그 15~16위 팀과는 승점 3이 뒤

지고 17위 팀(퀸즈파크 레이저스)과는

승점이 같아 남은 경기에서 모두

이기지 않으면 자력으로 리그 잔류가 어려운 상황이다.

20개 팀으로 이뤄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하위 세 팀이 다음 시즌에 힘 피언리그(2부)로 떨어진다.

볼턴은 후반 6분 만에 리오코커가

만회골을 터뜨렸지만 토트넘을 공세

를 막지 못하고 1-4 패배를 당했다.

/연합뉴스

이청용 잔류 문제없나

사회복지법인설립 | 국가예산지원신청

“노인, 장애인, 평생교육원, 대안학교,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서류 전문!

각종간호증명 | 통장사본 필요하신분

C 061-4624-0100, 010-8254-5003

6월2일(화)

▶광주광역시외국인(비자)국민권利于제공(한국인) 토트넘과의 홈경기에서 1-4로 졌다. 이에 따라 볼턴은 승점 34점(10승4무22패)으로 리그 18위에 머물러 강등위에 처했다.

리그 15~16위 팀과는 승점 3이 뒤

지고 17위 팀(퀸즈파크 레이저스)과는

승점이 같아 남은 경기에서 모두

이기지 않으면 자력으로 리그 잔류가 어려운 상황이다.

20개 팀으로 이뤄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하위 세 팀이 다음 시즌에 힘 피언리그(2부)로 떨어진다.

볼턴은 후반 6분 만에 리오코커가

만회골을 터뜨렸지만 토트넘을 공세

를 막지 못하고 1-4 패배를 당했다.

/연합뉴스

이청용 잔류 문제없나

사회복지법인설립 | 국가예산지원신청

“노인, 장애인, 평생교육원, 대안학교,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서류 전문!

각종간호증명 | 통장사본 필요하신분

C 061-4624-0100, 010-8254-5003

6월2일(화)

▶광주광역시외국인(비자)국민권利于제공(한국인) 토트넘과의 홈경기에서 1-4로 졌다. 이에 따라 볼턴은 승점 34점(10승4무22패)으로 리그 18위에 머물러 강등위에 처했다.

리그 15~16위 팀과는 승점 3이 뒤

지고 17위 팀(퀸즈파크 레이저스)과는

승점이 같아 남은 경기에서 모두

이기지 않으면 자력으로 리그 잔류가 어려운 상황이다.

20개 팀으로 이뤄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하위 세 팀이 다음 시즌에 힘 피언리그(2부)로 떨어진다.

볼턴은 후반 6분 만에 리오코커가

만회골을 터뜨렸지만 토트넘을 공세

를 막지 못하고 1-4 패배를 당했다.

/연합뉴스

이청용 잔류 문제없나

사회복지법인설립 | 국가예산지원신청